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生の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 비교

박혜영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순희*

순천향대학교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生の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충청권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전맹인 10명, 정안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첫째, 전맹 대학생 집단에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이 관찰되어 정안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경험이 가능한 음악적 상황에서도 버벌리즘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맥락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버벌리즘이 매체나 학습에 의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서술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한글 글분석 프로그램(K-LIWC)에서 전맹 대학생은 대명사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며, 부정적 정서 표현의 빈도가 정안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맹 대학생 집단에서 정동적 서술과 시각 이외의 감각적 서술이 정안 대학생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한 일화적 기억과 상황적 묘사에서 전맹 대학생은 상황적 묘사가 많은 반면 정안 대학생은 일화적 기억에 대한 서술 빈도가 높았다.

주제어 : 전맹 대학생, 언어적 서술, 내용분석, 한글 글분석 프로그램(K-LIWC), 버벌리즘(verbalem)

* 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sunhi-bak@sch.ac.kr)

1. 서론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한이 있는 감각장애인이지만, 제한된 시각 외의 타감각 특히, 청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음악 감상 경험이 가능하다(Tuttle & Tuttle, 2004).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음악을 개인적 향유 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 수단(조윤정 & 이해균, 2014; Robb, 2003; Wolffe & Sacks, 1997), 타인과의 효과적인 감정적 교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Molloy-Daugherty, 2013). 음악은 청각을 통해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정서 반응을 유도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ostohar, 2006).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음악 감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음악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심상(visual imagery) 처리 과정을 들 수 있다(Darrow & Novak, 2007). 시각장애인의 음악에 대한 촉각적 표상이 일반인의 시각적 표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Walker, 1985),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심상 활용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시각적 경험의 제한이 시각장애인의 음악 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adsen & Darrow, 1989). 또한 시각장애인의 추상적 정보 처리의 제한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음악 감상 후 제시된 음악에 대해 자유롭게 구술할 때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악기명이나 음악요소 등 자료 주도적인(data-driven) 서술은 많으나, 비유(analogy) 혹은 은유(metaphor)적인 표현은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적다고 보고하였다(Flowers & Wang, 2002).

이는 추상적 정보처리 과정을 언어적 서술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각적 자극인 음악 감상 경험에서도 추상적 정보처리에 시각 경험 제한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정서가 곧 타인과 소통하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주장을 토대로, 언어적 서술 방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음악 정서 반응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효과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Juslin & Laukka, 2003; Scherer, 2004; Watson, 2000).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감상의 정서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의식적(conscious)으로 경험한 감상자의 주관적 정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Daynes, 2010; Scherer & Zentner, 2001; Schmidt & Trainor, 2001). 한편, 언어는 청각에 의해 습득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에도 불구하고(Anderson & Olson, 1981; Civelli, 1983)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 감상의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분석한 논문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은 타인과 의사소통 하는 중요한 경로가 청각이므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음악 감상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감상자가 음악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구술하는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적 서술에 시각장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각장애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박순희, 1993). 연구자들은 시각장애 자체가 낮은 지적 수준을 동반하지 않으나(Tuttle & Ferrell, 1995) 시각 경험의 제한이 인지 발달에 불균형을 야기하고 또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Jaworska-Biskup, 2011; Rosel, Caballer, Jara & Oliver, 2005; Tobin, 1992). 또한 시각 손상으로 인한 언어적 특성과 관련하여 Cutsforth(1951)는 버벌리즘(verbalism)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 혹은 파악하지 못하는 어휘를 일상생활에서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 습관을 일컫는 말이다(박순희, 1993; Cutsforth, 1951). 특히 시각지향성 버벌리즘(visually oriented verbalism)은 선천성 전맹들이 색깔이나 명암, 채도 등 시각적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어휘들을 직접적인 경험 없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Vinter, Fernandes, Orlandi, & Morgan, 2013). 이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천성 전맹과 정안인의 언어 유사성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osel et al., 2005).

시각장애인의 언어적 특성에서 연령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기 수행된 시각장애인 언어 관련 연구의 대상은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확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청취가 가능한 음악 감상은 시각장애인의 언어적 서술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에 제한이 없는 시각장애 대학생이 음악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정서 반응을 자유롭게 구술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언어적 서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 감상 시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生の 정서 반응을 언어적 서술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음악으로 유도된 구체적인 느낌을 감상자가 직접 언어적으로 묘사하도록 하여, 감상 경험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실제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기분전환이나 각성 등 정서 환기 수단으로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 만큼(Park, Chong, & Kim, 2015) 음악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더욱이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의미있는 소통과 표현의 수단이 되는 음악과

음악 감상 시 발생하는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심도 있게 내용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언어적 서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버벌리즘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천성 전맹(total blindness)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두 집단 간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두 집단 간 음악 감상 경험의 지각적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두 집단 간 음악 감상 경험의 관련적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음악 감상 경험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분석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한국어 글 분석 프로그램(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K-LIWC)을 사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충청권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20명(전맹인 10명, 정안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명하고 청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난청 자가 진단 테스트 확인)되는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등록 시각장애인 중 버벌리즘 조사를 위해 선천성 전맹(total blindness)으로 제한하였다. 시각장애인 참여자는 연구자가 시각장애인대학생협회, 시각장애인 대학생동아리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일반인 참여자는 시각장애인 참여자의 생활권과 학력 등을 고려하여, 모집된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하였다(Wolffe & Sacks, 1997).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배경 (N=20)

영역	구분	전맹 대학생 (n=10)	정안 대학생 (n=10)
성별	남	6	5
	여	4	5
연령	-	22.1±2.18	21.5±1.63
음악감상시간 (하루 기준)	30분 - 1시간	2	3
	1시간 - 2시간	4	4
	2시간 이상	4	3
악기연주유무	예	6	5
	아니오	4	5
음악활동경험	6개월 미만	1	2
	6개월 - 1년	3	3
	1년 - 3년	4	3
	3년 이상	2	2
선호장르	클래식	2	1
	대중음악	6	7
	종교음악	1	2
	기타	1	0
선호분위기	빠르고 경쾌한	2	3
	느리고 서정적	7	3
	장중하고 격조있는	0	1
	자유롭고 즉흥적	1	3

2. 연구 도구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生の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음악 청취 후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이는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과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 등을 포괄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적 요소 혹은 음악 외적 요소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다.

〈표 2〉 음악 감상 경험에 관한 질문지

질문 유형	질문 내용
서술적 변인	음악을 듣고 느낀 정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느껴진 정서를 형용사로 설명한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지각적 변인	음악을 통해 느낀 정서의 신체적 반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악을 통해 느낀 정서는 어떤 이미지와 연관이 있습니까?
관련적 변인	위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음악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악 이외에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위의 질문지에 따른 인터뷰 자료 수집은 오디오 녹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오디오 자료는 녹취록으로 변환(전사)하였다. 전사한 녹취록을 기반으로 인터뷰 내용에 대한 개념화는 계속적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개념 정의를 도출할 때까지 수행하였으며, 초반에 분류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범주를 통합해 가는 방식을 따랐다. 또한 분석의 단위는 범주화된 개념에 따라 단어, 문구 또는 문장으로 하였다.

한편,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된 도구는 이창환, 심정미, 윤애선(2005)이 개발한 ‘한국어 글 분석 프로그램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K-LIWC)이다. K-LIWC는 총 3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언어학적 변인(대명사, 형용사, 전치사 등)을 살펴보면, 관사, 전치사 등과 같이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단어 변인(접속사, 전치사, 한정사)과 1, 2, 3인칭 대명사 관련 변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명사 관련변인과 기능단어들은 언어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단어로서 개인차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심리학적 변인(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사회적 과정, 감각·지각적 과정)을 살펴보면, 정서적 과정에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있는데, 이의 하위변인으로는 긍정적 느낌, 낙천성, 활동성, 불안, 화, 슬픔, 우울이 있다. 인지적 과정에는 원인, 사고, 기대, 제한 확신, 추측 등이, 감각, 지각적 과정에는 감각이나 지각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과정과 자기영역변인이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문항별 신뢰도는 Chronbach α 가 .50 이상이다(이창환 외, 2005).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선택된 곡을 약 3분 이상 감상한 후 음악에서 느껴진 정서, 신체적 반응, 연관된 이미지 혹은 일화적 기억 등이나 특정 정서와

연관된 음악적 요소 또는 음악외적인 내용들을 자유롭게 구술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는 정서 유도 음원으로 선정한 작품을 참여자에게 들려주고, 참여자는 작품을 들으며 혹은 듣고 난 후 그가 느낀 정서를 형용사 등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 혹은 묘사하고, 연구자는 이를 녹취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원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시 관찰된 내용이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였다. 추가로 실시할 K-LIWC를 위해 전사된 인터뷰 내용은 컴퓨터 텍스트 파일로 저장 하였다. 본 단계는 1대1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과제 수행 시간은 50분 내외였다.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의 분석을 위해 진행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녹취록을 반복하여 청취하고 이를 행간 분석하여 개념적 틀이나 떠오르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범주화된 문장과 문구에 대하여 반복 범주화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호배타적인 3개의 상위 근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각 상위근원의 특성에 따라 그 근원의 범주가 넓은 경우는 소주제에 따라 하위근원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앞서 도출된 범주에 해당 문장이나 문구를 분류, 정리하는 부호화(코딩)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으므로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박사 과정생 1인이 각기 부호화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

내용분석 연구 방법은 자료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반복성을 강조함으로써(Krippendorff, 2004)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부호화 과정에서 코더들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연구자와 박사과정생과의 1차 부호화 검증 결과 총 126개 중 108개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 86.1%의 일치도를 보였다. 부호화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간의 토론 및 합의과정을 거쳐 2차 부호화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1.4%의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범주로 분류된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여 빈도로 제시하였으며, 양적 자료로 처리할 경우 간과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방법을 병행, 각 범주에 대한 인용문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서술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K-LIWC를 사용하여 통사론적 형태와 심리학적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1차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전사한 텍스트 파일 자료의 문법적인 오류나 철자 오류 등을 오프라인에서 모두 수정한 다음 텍스트 자료를 온라인상의 K-LIWC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태깅 시스템(Tagging system)에 의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개념 및 어휘 구축 시스템에 의한 2차 교정(Post Processing System)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형태소의 오류와

중의적 의미에 대한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 과정을 거쳐 심리학적, 언어학적 요인들에 대한 결과 파일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변인에서 통사론적 형태에 따른 6개 요인을 살펴보고, 긍정 및 부정적인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그리고 지각적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차원을 8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간의 협의(peer debriefing), 연구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 등을 실시하였다(Stemler, 2001). 첫째, 삼각검증법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측면의 자료수집과 활용으로 연구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의 연구자료 해석에서의 결점과 편견, 판단오류를 보완할 수 있으며,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상, 동일한 결과를 도출 하였을 때 연구자가 내린 결론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와 K-LIWC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포괄적인 이해와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연구 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조사(pilot test)차원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한 표본 추출은 전체 내용의 10% 또는 20%(Wimmer & Domnick, 1997)로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5%에서 7%(Kaid & Wadsworth, 1989)도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내용의 20%로 신뢰도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은 현재 음악치료학 박사생이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가 실시하였다. 1차로 평가자 간의 검증 결과 후 불일치가 발생한 유목에 대해서는 평가자와 연구자가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평가자와 2차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91.4%의 일치도를 보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김수연, 2005). 이에 본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 등을 연구 참여자 일부에게 메일로 발송한 후,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의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분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분석한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두 집단 간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서술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천성 전맹 대학生の 특성을 조사하는 시각지향성 버벌리즘과 서술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서술적 변인에서는 내용 분석 방법 이외에 K-LIWC를 통한 분석을 포함하여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집단간 음악 정서 반응의 지각적 변인을 분석하는 데 시각적, 감각적, 정동적 하위 범주를 사용하였다. 셋째, 집단간 음악 정서 반응의 관련적 요소 항목에 관한 조사에서는, 음악 용어를 직접 언급한 내용은 제외하고 음악을 통해 유도된 일화적 기억이나 상황적 묘사를 분석하였다.

1.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서술적 변인

1) 시각지향성 버벌리즘(visually oriented verbalism)

본 연구에서는 전맹 대학생이 색채, 명암, 크기, 모양 등 외부 대상에 대해 시각의 차원에서 인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시각 경험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을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으로 분류하였다(Vinter et al., 2013). 분석의 단위는 '주제'이며, 상호배타성 확보를 위해 타 범주로 중복 분석하지 않았다. 전맹 대학생의 서술 내용 중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으로 분류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색소폰 색깔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색소폰을 볼 때, 이건 어떤 색깔 약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붙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에서 밝은 음악은 하늘색, 하얀색 이쪽으로 가고 클래식에서 좀 어두운 음악은 보라색이나 검정색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재즈에서 밝은 음악은 약간 노란색 쪽으로 가고 재즈에서 좀 가라앉은 음악은 빨간색에서 밤색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는 친구들한테 들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전맹 대학生 B).

피가 빨간색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건 그냥 색깔이 무슨 색인지 그런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잘 모르니까, 그 느낌과 색깔이 매칭은 안 되는데, 그냥 말하는 거죠, 친구들이 색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색이라는 게 그렇구나 하고 들어서 아는 거지 뭐 보지를 못했는데 알아도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저 들은 걸 모방한다고 해야 하나, 흉내낸다고 해야 하나(전맹 대학生 K).

본 연구에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은 시각 정보의 습득 배경에 따라 매체, 학습, 맥락의 세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매체 버벌리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소설, 만화, 영화, TV 드라마 등의 매체를 통해 얻어진 시각 정보를 모방 서술하는 것을 말하고, 학습 버벌리즘이란 교육을 통해 학습한 시각 정보에 대한 모방 서술을 말하며, 맥락 버벌리즘이란 타인의 언어적 표현의 흐름, 분위기, 장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시각적 정보의 유추 서술을 말한다. 이에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전맹 대학생의 서술 중 57.2%는 맥락적 의미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표현하는 버벌리즘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체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한 버벌리즘은 22.8%, 학습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한 버벌리즘은 20.0%였다(<표 3> 참조).

<표 3>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 내용 분석 (N=10)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습득 배경	빈도(%)
시각 지향성 버벌리즘	학습을 통한 직접 경험	교사가 악기의 모양 및 색깔을 설명해줌 부모님이 옷차림, 옷색깔 등을 자세하게 알려줌 친구가 노을이 지는 모습에 대해 설명해줌 일상생활훈련 교재를 통해 음식의 색을 알게됨 음악회에 함께 간 도우미가 연주 모습을 설명해줌	7(20.0)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소설에서 색깔의 계절적 느낌을 묘사한 내용을 읽음 화면해설 영화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알게됨 드라마를 통해 특정 장소의 분위기를 이해하게 됨 노래 가사에서 표정 및 태도에 대한 표현을 알게됨	8(22.8)
	타인을 통한 맥락적 경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색의 상징을 이해함 특정 장면을 묘사한 내용을 듣고 크기를 유추함 상황적 서술을 통해 빛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알게됨 잔존감각을 시각정보와 연합하여 사물의 특성을 이해함	20(57.2)
합계			35(100)

2) 서술의 형태

서술의 형태는 인터뷰 녹취록을 ‘한국어 글분석 프로그램(K-LIWC)’을 사용하여 언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이지영 & 김명연, 2011). 이는 어절, 형태소, 어절 대 문장 등의 통사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전맹 대학생의 단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언어적 차원은 인터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사적 접근을 통해 전맹 대학생의 언어사용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요(대분류) 언어학적 차원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의 6개 하위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적 차원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서적 과정(긍정 및 부정 정서), 인지적 과정 및 지각적 과정의 3개 범주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K-LIWC 프로그램 분석은 우선 태깅 시스템(Tagging system)으로 형태소를 분석한 후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개념 및 어휘 구축 시스템에 의한 2차 교정(Post Processing System)작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처리 작업이 끝난 언어학적, 심리학적 요인들의 독립표본 *t*검증 분석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서술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품사의 사용 빈도는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대명사 사용 빈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맹 대학생이 정안 대학생에 비해 음악 정서 반응 서술에서 대명사의 사용 비율이 2.5배 높았다. 서술의 내용어(content word)로 분석한 심리학적 변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지각적 과정의 3가지 범주 가운데,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지각적 과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적 과정의 긍정적 정서는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정서는 전맹 대학생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 슬픔 항목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인지적인 과정 중 사고(thinking)의 항목은 정안 대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에서의 언어학적 특성 (N=20)

품사	전맹 대학생 (n=10)	정안 대학생 (n=10)	<i>z</i>	<i>p</i>
명사	14.6	15.1	-1.369	0.17
대명사	1.8	0.7	-2.389	0.04*
동사	10.8	13.3	-1.579	0.11
형용사	5.5	5.7	-0.684	0.49
부사	2.9	2.6	-0.526	0.59
감탄사	0.8	0.3	-0.919	0.35

**p* < .05

<표 5>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서술적 변인의 심리학적 특성 (N=20)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전맹 대학생 (n=10)	정안 대학생 (n=10)	<i>z</i>	<i>p</i>
정서적 과정		10.88	6.13	-2.261	0.02*
	긍정적인 정서	8.06	8.94	-0.368	0.71
	활동성	8.13	8.88	-0.321	0.74
	부정적인 정서	10.94	6.06	-2.174	0.03*
인지적인 과정	슬픔	10.81	6.19	-1.957	0.05*
	사고	7.25	9.75	-1.050	0.29
지각적인 과정		8.44	8.56	-0.05	0.95

**p* < .05

2.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지각적 변인

지각적 변인이란 외부에 실재하는 사물 혹은 사건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 의해 촉발되는 연구대상자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의미한다. 지각적 변인은 내용 분석 단위로서 ‘단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이에선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청취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서술이 분석 대상이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음악에 의해 유도되는 정서 반응에 대한 언어적 서술 특성을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 두 집단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인만큼, 신체적 감각적 형용사 가운데 시각 형용사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청각을 포함한 다른 감각들 즉 후각, 미각, 촉각 등은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였다(<표 6> 참조).

시각적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시각적 인식을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색깔, 모양, 명암, 크기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범주에는 동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 ‘쏟아지는’, ‘솟아오르는’, ‘출렁거리는’ 등의 단어도 포함된다. 반면 시각적 표현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사들, 예를 들어 ‘장면’, ‘모습’, ‘이미지’ 등의 단어는 그 단어들을 꾸미는 앞의 단어들을 시각적 범주에 포함하므로, 이 범주의 단어로 취급하지 않았다.

외부 자극에 대해 오감을 통해 인식한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모든 단어들은 감각적 범주에 속하며(송정근, 2007), 시각적 단어들은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므로, 감각적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 촉각 ‘까끌거리는’, 미각 ‘달콤한’, 후각 ‘향기로운’, 청각 ‘날카로운’ 등을 이 범주로 취급하였다. 감각적 묘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사들, 예를 들어 ‘소리’, ‘느낌’, ‘향기’ 등은 이를 수식하는 앞의 단어들을 범주에 포함하므로, 감각적 범주에서는 제외하였다.

정동적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모든 단어들 즉,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 마음이 {생기다/들다}’와 ‘마음 {이/에} ~한 상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김은영, 2004). 이 범주에는 경험적이고, 비의도적이며,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속한다. 신체의 감각기관과의 연계성을 특정할 수 있는 시각적 범주나, 감각적 범주의 단어들과는 달리,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주관적 표현을 명시하는 명사들, 예를 들어 ‘느낌’이나 ‘생각’ 혹은 ‘분위기’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사들을 그 앞에서 수식하는 정서 형용사, 예를 들어 ‘비장한’, ‘즐거운’, ‘불안한’ 등을 정동적 범주에 포함하므로, 위의 명사들은 이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음악 감상 경험의 지각적 변인 내용 분석 (N=20)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전맹 대학생 (n=10)	빈도 (%)	정안 대학생 (n=10)	빈도 (%)	전체 (%)
시각적	밝은, 환한, 빛이 비추는, 하늘색, 푸른, 금빛, 반짝이는, 예쁜		20 (6.1)	밝고, 환한, 화려한, 선명한, 투명한	42 (13.6)	62 (9.7)
	어두운, 어스름한, 짙은 주홍색, 갈색의, 보라색의		32 (9.9)	짙은 회색빛의, 어두운	36 (11.6)	68 (10.7)
감각적	쿵광거리는, 가벼운, 따뜻한, 부드러운, 포근한 이완된, 시원한, 달콤한, 새콤한		34 (10.5)	시원한, 가벼운, 따뜻한, 가쁜한, 이완된, 향긋한, 달콤한, 신선한	20 (6.5)	54 (8.5)
	차가운, 쓰린, 축축한, 시린, 싸늘한, 부드러운, 황량한, 진한, 묵직한		65 (20.1)	무거운, 먹먹한, 차가운, 차분한, 나른한, 답답한	51 (16.5)	116 (18.3)
지각적 변인	정동적	열정적인, 기쁜, 신나는, 흥미있는, 즐거운, 좋은, 낭만적인, 편안한, 여유로운, 안정적인, 고급스러운, 풍부한, 희망적인, 평화로운, 평온한, 강렬한, 감싸주는, 활기있는, 낯선	39 (12.1)	익살스러운, 즐거운 쾌활한, 기쁜, 신나는, 생기있는, 활발한, 강한, 정열적인, 사랑스런, 포근한, 친밀한	33 (10.6)	72 (11.4)
	행동적	애절한, 아쉬운, 그리운, 쓸쓸한, 스산한, 지친, 힘든, 처량한, 외로운, 절망스러운, 서글픈, 상실한, 한탄스러운, 외로운, 우울한, 절망적인, 억압된	91 (28.2)	우울한, 절망적인, 황폐한, 지친, 먹먹한, 눈물나는, 안쓰러운, 지루한, 가엾은, 압도되는, 아쉬운, 상실한, 후회스러운, 감상적인, 중후한, 삭막한, 고민스런	62 (20.0)	153 (24.2)
행동적	계단을 내려오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뛰어다니는, 춤을 추는, 점프하는, 안아주는, 흥얼거리는		18 (5.6)	어깨가 으쓱으쓱,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쫓아가는, 왕래하는, 점프하는	31 (10.0)	49 (7.8)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는, 울면서 걸어가는, 저벅저벅 걸어가는, 홀로 서있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느낌, 멍하니 고개속이고 있다가 앞을 바라보는 아래로 쪽 내려가는		24 (7.5)	멍하니 바라보는, 가만히 앉아있는, 무겁게 (천천히) 걸어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점차 사라지는, 끝까지 내려가는	35 (11.2)	59 (9.4)
합계			323 (100)		310 (100)	633 (100)

3.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관련적 변인

음악 감상 경험에서의 관련적 변인 분석 단위는 문장으로서,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뷰의 특성상 주어가 생략된 경우라 할지라도 의미가 명확할 경우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음악에 의해 유도된 일화적 기억은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사건, 인물, 장소 등에 대한 서술이며, 상황적 묘사는 음악으로 유도된 이야기(story telling), 혹은 상상적 이미지에 대한 서술이다. 다른 범주들과의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억, 장면, 이야기 등의 단어가 쓰인 문장은 일화적 기억과 상황적 묘사의 범주로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서술적 변인, 지각적 변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표 7> 참조).

	전맹 대학생 (n=10)	빈도 (%)	정안 대학생 (n=10)	빈도 (%)	전체 (%)	
관련적 변인	일화적 기억	해변에 친구들과 놀러간 것이 기억남. 카페에서 편안하게 대화했던 장면이 떠오름. 신나는 장면이지만 나에게서는 낯설음.	가족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떠올림. 놀이공원 퍼레이드의 들뜬 현장감이 느껴짐. 군무의 통일성 있는 모습이 인상됨.	8 (14.0)	14 (25.4)	22 (19.6)
		과거에 혼자 좋아했던 사람이 떠오름. 새벽 출근길의 외로운 느낌이 인상됨. 장애로 인해 겪게되는 어려움들이 생각남.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로 인해 더욱 슬퍼짐.	헤어진 연인이 생각남. 영화에서 본 전쟁 후 폐허의 장면이 떠오름. 방송매체를 통해 본 시대극의 스토리가 떠오름. 과거의 후회스러운 한 장면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김. 직장을 잃고 쓸쓸히 거리를 걷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함.	12 (21.0)	13 (23.7)	25 (22.3)
	상황적 묘사	친한 사람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장면을 묘사함. 익숙한 장소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장면을 상상함. 들뜬 축제분위기 속에서 관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함.	연말파티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장면을 묘사함. 카페나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장면을 상상함. 공연장에서 연주자들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림.	18 (31.5)	12 (21.9)	30 (26.8)
		죽음, 사별 등의 구체적 상황을 서술함. 외딴 집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그려냄. 공유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한 서글픔을 묘사함. 상실감을 느끼는 자신을 소설 속 주인공에 대입하여 그려냄	계절을 포함한 자연의 특성을 떠올려 쓸쓸한 이미지를 그려냄. 슬픈 영화의 장면을 재구성하여 서술함. 비장한 역사적 사건을 상상하여 서술함.	19 (33.3)	16 (29.0)	35 (31.3)
합계		57 (100)	55 (100)	112 (100)		

1) 일화적 기억

감상자가 음악을 듣고 떠오른 일화적 기억(사람, 장소, 사건 등)을 서술한 문장은 일화적 기억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일화적 기억은 음악에 의해 선행 경험으로부터 유도된 구체적인 기억을 말하며, 감상자가 이를 다양한 어휘로 서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상황적 묘사, 이미지 서술과 차별화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서술하였는가의 여부가 범주화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이때의 기억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이거나 영화 혹은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예전에 경험한 ~인 것 같다’ 등의 형태로 서술한 것을 일화적 기억의 범주로 채택하였다.

제가 작년에 5사에서 진행한 대학생 봉사단체를 했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랑 같이 제주도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 나와서 춤추면서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전맹 대학생 a).

대학교 연습실에 계단 위에서부터 쿵쿵거리면서 내려오면서 장난쳤던 느낌, 맹학교 거실에서 함께 놀았던 생각이 나네요(전맹 대학생 f).

무성영화 찰리채플린 영화가 생각나요, 음악이 이런 우스꽝스런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정안 대학생 c).

드라마에서 본 장면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정안 대학생 d).

2) 상황적 묘사

상황적 묘사란 음악이 구체적 상황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감상자가 인물, 사건, 장소 등을 상상으로 이야기화 하여 서술하는 것을 뜻한다. 만들어진 상황에 연구 참여자가 등장하는 것과, 혹은 제3의 가공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포함하였다. 감상자에게 떠오른 가상의 환경, 인물, 사건에 대한 묘사로 구성된 문장을 상황 묘사 범주로 분류하였다. 만약 참여자가 묘사하는 상황이 실제의 경험인지 혹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로 경험 유무를 질문하여, 감상자가 경험한 것에 대한 서술로 확인되면 상황적 묘사에서 제외하였다.

연애는 안 해 봤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여자친구랑 싸우고, 예전에 바다에 가서 파도치고 모래사장에 앉아있는데, 이 친구하고 처음에 고백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내가 처음 좋아했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런게 어울릴 것 같아요(전맹 대학생 G).

몰래 사진찍히는 느낌, 도촬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러면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전맹 대학생 F).

멋진 해변가나 아니면 연기 자욱한 재즈바가 어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재즈바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데 앉아서 친한 사람들과 편하게 얘기하고, 무대에는 잔잔하게 재즈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그런게 어울릴 것 같아요(정안 대학생 I).

초록색 잔디가 많고 하늘에 구름도 약간 끼어있고 평화로우면서 속에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한게 상상이 돼요(정안 대학생 J).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맹 대학생의 높은 시각지향성 버벌리즘이 관찰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적 정보의 습득 배경에 따라 맥락적 버벌리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매체 버벌리즘과 학습 버벌리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벌리즘의 사용자체가 맥락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상생활이나 일반인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정보들이 책이나 영화, TV 드라마나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한 정보나 교육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학습한 정보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매체나 학습을 통해 얻은 시각정보보다 맥락적으로 습득한 시각정보에 대해 보다 강한 신뢰를 갖고 이를 일상적 언어 습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aworska-Biskup, 2011).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맥락적 언어 습관이 학습이나 매체를 통해 얻은 지식에 기반한 것보다 수적으로도 더 많으며, 또 이에 대한 신뢰도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emp, 1981). 다시 말해, 일반인들과의 대화에서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수용된 시각지향성 버벌리즘 즉 맥락적 버벌리즘이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서술 형태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한글 글분석 프로그램(K-LIWC)의 통사론적 요인 분석에서 전맹 대학생이 대명사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erez-Pereira, 1999). 이는 전맹 대학生の 인터뷰 집중력이 정안 대학생 보다 높아 연구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본래의 명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구술하기에 용이한 이 같은 서술 형태를 취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전맹 대학생들이 불확실한 내용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Andersen, Dunlea, & Kekelis, 1984). 이는 전체 구술 패턴에서 나타난 특징들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는데, 인터뷰 전사 자료를 살펴보면, 서술된 문장에서 전맹 대학생이 정안 대학생에 비해 단문보다 복문 사용이 많아 길이가 길고, 중복 어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전맹 대학생이 대명사 사용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음악으로 유도되는 정서를 언어적으로 서술할 때, 정안 대학생은 시각적 혹은 이미지적 서술을 통한 구체적인 전달이 용이하지만, 전맹 대학생은 상상적 서술이나 상황 서술이 많아 지시대상이 모호할 때, 대명사를 대체 사용하게 됨으로써,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글분석 프로그램의 심리학적 변인 분석에서 전맹 대학생이 정서적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가 높았고, 정안 대학생은 인지적 과정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시각적 과정에서는 서술에 사용된 어휘 빈도에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전맹 대학생이 시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들에 대해 시각 외의 타감각으로 서술에 필요한 시각적 표현들을 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Tobin, 1992).

셋째, 지각 변인 항목에서 두 집단 모두 정동적 서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서술이라는 본 연구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청취하고 그 정서 반응을 표현하는 데에 정동적 서술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참여자들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동적 표현이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신선경, 2010). 또한 정안 대학생이 전맹 대학생보다 시각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 반면, 전맹 대학생은 정안 대학생보다 정동적 및 감각적 표현들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각손상으로 인한 시각적 표현의 제한을 타감각에 의존(Eitan, Ornoy, & Granot, 2012)하거나 정동적 표현으로 보상, 대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시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타감각을 통해 획득하며, 이 같은 보상 대체 감각적 정보 획득은 시각장애인이 일반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시각지향성 버벌리듬이 언어의 맥락적 특성에 기반한 소통 수단으로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보상 대체 감각적 정보 획득은 시각을 통해 습득할 수 없는 정보를 타감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적 변인에서 정안 대학생과 전맹 대학생은 일화적 기억과 상황적 묘사에서 대조를 보였는데, 이 또한 구체적(직접 혹은 간접) 경험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정서 반응을 서술하는 일화적 기억 항목에서 정안 대학생이 전맹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각적 경험의 양에 기반한 것이고(Tulving, 2001), 상황적 묘사 항목에서 전맹 대학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음악외적서술에서 전맹 대학생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 혹은 사건 구성을 통해 자신의 정서 반응에 대한 서술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Joseph, & Southcott, 2006).

이는 일반인에게 시각적 내용 혹은 일화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자극이 시각 경험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상황적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는 상상적, 사건적 자원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 정서가 가지는 시각적 단서들이 일반인 집단에서는 일화적 기억이라는 구체적 경험 서술로 표현된 반면, 시각장애인 집단에서는 이 같은 시각적 이미지들을 내면에서 타감각적 내용으로 전환시켜 상상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상황적 묘사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소리의 의미체로서, 비언어적 소통수단으로서의 음악의 특성이 정서 경험 단계에서 열린 정보로 수용될 수 있고, 시각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음악이 타감각에 의한 내적 재구성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정서적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 유형에 따른 일화적 기억의 서술의 빈도는 두 집단 모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일화적 기억을 서술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에 비해 긍정적인 음악에서 사건 기억을 더욱 잘 떠올린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North, Hargreaves, & Hargreaves, 2004; Zentner, Grandjean, & Scherer, 2008).

2. 제언

본 연구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감상을 통해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음악에 상황 묘사를

접목한 음악극 형태의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황 묘사 시 사용되는 단어들에는 촉각이나 청각 뿐만 아니라 시각적 단어들도 조화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매체나 학습을 통해 획득한 시각적 어휘에 대한 정보보다, 맥락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한 시각 정보가 더욱 높게 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음악극을 적극 활용하여 이야기 혹은 사건의 구성 및 전개에 따른 시각적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각적 어휘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일반사회에 소속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언어적 소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악은 인간의 내재적 정서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외부 자극을 수용할 때, 시각적 이미지와의 연합이 용이한 매체이다. 시각을 상실하여 시각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나, 타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이 삶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을 매개로 하는 감각-연합적 접근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외적 요인들이 음악 정서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한 폭넓은 경험은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외적 정보들을 수용하고 학습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 즉, 음악적 자극은 정서 발달이나 감각 정보 습득, 교육 등 시각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치료나 중도실명자들을 위한 재활 훈련 등 성인기 시각장애인들의 적응 프로그램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의 비언어적 특성은 언어를 통해 전달할 수 없는 감각 혹은 정서의 섬세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감상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hands-on experience) 경험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음악은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 감각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한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은 시각장애인들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접근방법은 시각장애인이 일반인과의 정서적 공감을 통해 사회인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수연 (2005) **중학생의 체육수업 정서체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영 (2004). **국어 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순희 (1993). **선천성 맹아동과 정안아동에 있어서 사물을 통해 표현하는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근 (2007).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선경 (2010). 사용자 중심의 음악 정서 표현 분류 체계 정립을 위한 시안. **텍스트언어학**, 29, 197-220.
- 이지영, 김명언 (2011).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에 나타난 심리적 단어사용과 조직 맥락 간의 관계: 포스코 사례에 대한 K-LIWC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4), 759-783.
- 이창환, 심정미, 윤애선 (2005). 언어적 특성을 이용한 '심리학적 한국어 글분석 프로그램 (KLIWC)'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 **인지과학**, 16(2), 93-121.
- 조윤정, & 이해균. (2014). 시각장애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341-361.
- Anderson, D. W., & Olson, M. R. (1981). Word Meaning among Congenitally Blind Childre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75(4), 165-68.
- Andersen, E. S., Dunlea, A., & Kekelis, L. S. (1984). Blind children's language: Resolving some differences. *Journal of Child Language*, 11(3), 645-664.
- Civelli, E. M. (1983). Verbalism in young blind childre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February, 61-63.
- Cutsforth, T. D. (1951). *The blind in school and society: A psychological study*. New York: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 Darrow, A. A., & Novak, J. (2007). The effect of vision and hearing loss on listeners' perception of referential meaning in music. *Journal of Music Therapy*, 44(1), 57-73.
- Daynes, H. (2010). Listeners' perceptual and emotional responses to tonal and atonal music. *Psychology of Music*, 39(4), 468-502.
- Eitan, Z., Ornoy, E., & Granot, R. Y. (2012). Listening in the dark: Congenital and early blindness and cross-domain mappings in music. *Psychomusicology: Music, Mind, and Brain*, 22(1), 33-45.
- Flowers, P. J., & Wang, C. H. (2002). Matching verbal description to music excerpt: The use of language by blind and sighted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202-214.
- Jaworska-Biskup, K. (2011). The world without sight. A comparative study of concept understanding in Polish congenitally totally blind and sighted children. *Psychology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15(1), 27-48.
- Joseph, D. Y., & Southcott, J. (2006).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music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Proceedings of the Australi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 Juslin, P. N., & Laukka, P. (2004). Expression, perception, and induction of musical emotions: A review and a questionnaire study of everyday listening. *Journal of New Music Research*, 33(3), 217-238.
- Kaid, L. L., & Wadsworth, A. J. (1989). Content analysis. In P. Emmert & L. Barker (Eds.), *Measurement of communication behavior* (pp. 197-217). New York: Longman.

- Kemp, A. (1997). Individual differences in musical behavior. In D. J. Hargreaves & A. C. North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music* (pp. 25-4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ippendorff, K. (2004).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3), 411-433.
- Madsen, C. K., & Darrow, A. A.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ptitude and sound conceptualiza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Music Therapy, 26*(2), 71-78.
- Molloy-Daugherty, D. (2013). Rhythmic auditory-motor entrainment of gait patterns in adults with blindness or severe visual impair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KS.
- North, A. C., Hargreaves, D. J., & Hargreaves, J. J. (2004). Uses of music in everyday life. *Music Perception, 22*(1), 41-77.
- Park, H.Y., Chong, H. J., & Kim, S. J. (2015).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itudes and uses of music by adults with visual impairm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9*(4), 303-316.
- Perez-Pereira, M. (1999). Deixis, personal reference, and the use of pronouns by blind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26*(03), 655-680.
- Robb, S. L. (2003). Music interventions and group participation skills of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Raising questions about music, arousal, and atten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40*(4), 266-282.
- Rosel, J., Caballer, A., Jara, P., & Oliver, J. C. (2005). Verbalism in the narrative language of children who are blind and sighted.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9*(7), 1-22.
- Rostohar, J. W. (2006). The effects of a multiphase music therapy intervention on the acquisition of social skills among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Two case stu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MO.
- Scherer, K. R. (2004). Which emotions can be induced by music? What are the underlying mechanisms? And how can we measure them?. *Journal of New Music Research, 33*(3), 239-251.
- Scherer, K. R., & Zentner, M. R. (2001). Emotional effects of music: Production rules. *Music and emotion: Theory and research, 361-392*.
- Schmidt, L. A. & Trainor, L. J. (2001). Frontal brain electrical activity (EEG) distinguishes valence and intensity of musical emotions. *Cognition & Emotion, 15*(4), 487-500.
- Stemler, S. (2001).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7*(17), 137-146.

- Tobin, M. J. (1992). The language of blind children: Communication, words, and meanings. *Language and Education, 6*(2), 177-182.
- Tulving, E. (2001). Episodic memory and common sense: how far apart?.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6*(1413), 1505-1515.
- Tuttle, D. W., & Ferrell, K. A. (1995). Visual impairment. In E. L. Meyen & T. M. Skrtic (Eds.), *Special education and student disability: An introduction—Traditional, emerging,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pp. 487-532). Denver, CO: Love Publishing.
- Tuttle, D. W., & Tuttle, N. R. (2004). *Self-esteem and adjusting with blindness: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life's demands* (3r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Vinter, A., Fernandes, V., Orlandi, O., & Morgan, P. (2013). Verbal definitions of familiar objects in blind children reflect their peculiar perceptual experience.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9*(6), 856-863.
- Walker, A. R. (1985). Mental imagery and musical concepts: Some evidence from the congenitally blind.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29-237*.
- Watson, D. (2000). Basic problems in positive mood regulation. *Psychological Inquiry, 11*(3), 205-209.
- Wimmer, R. D., & Dominick, J. R. (1997).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Wolffe, K., & Sacks, S. Z. (1997). The lifestyles of blind, low vision, and sighted youths: A quantitative compariso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1*, 245-257.
- Zentner, M., Grandjean, D., & Scherer, K. R. (2008). Emotions evoked by the sound of music: Characterization,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Emotion, 8*(4), 494-521.

Differences in Verbal Description of Music Listening Experiences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Total Blindness and Typical Vision

Park, Hye Young

Ewha Womans University

Chong, Hyun Ju

Ewha Womans University

Bak, Sunhi

Soonchunhyang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language used by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s. Participants of the in-depth interviews were students at universities in Seoul and Chungcheong-do. Ten participants were visually impaired and the other ten were normal sighted. Content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visually oriented verbalism is observed among visually impaired people even when they can experience the same level of musical experience with normal sighted people. Highly observed is verbalism by contextual information which is naturally obtained in daily life, rather than verbalism by the media, or by learning. Second, K-LIWC was employed to examine the types of verbal description between comparing groups, high ratio of use of pronouns in the visually impaired was observed as well as that of the description of negative emotions. Third, compared to normal sighted people, visually impaired people more frequently use affective description and description via senses except vision. Through non-vision senses that substitute or compensate visual impairment, the visually impaired understand and express emotions that the normal sighted feel through vision. Last, in regards to episodic memory and situational depiction, normal sighted people frequently narrate episodic memories, while visually impaired people rather focus on situational depiction.

Key Words : *blind college students, verbal description to music, content analysis, K-LIWC, verbalism*

논문 접수: 2015. 09. 15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5. 12. 14